

디지털시대,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핵심 키워드

첫째 ‘**코딩**’의 언어’를 배워라. 앞으로 세상은 더 빠르게 **디지털** 될 것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코딩**은 영어와 같은 존재다. 영어는 이제 당연히 잘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코딩**이라는 **코딩**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모두가 개발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개발자들과 **코딩**의 언어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한다. 물론 **코딩**을 개발자 수준으로 한다면 몸값이 쿼터 점프할 확률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만 해도 우리 아이들의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진다. 금융·바이오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디지털** 역량을 요구한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디지털** 전문성을 모두 갖춘 ‘융합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어려서부터 **코딩**을 조금씩이라도 배우는 것을 추천한다. 대학에서는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컴퓨터공학(Computer Science)은 꼭 하는 것이 좋다. **코딩**은 디지털 시대 취업 성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다.

넷째, ‘**리뷰**’가 되자. 디지털 시대에는 AI와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잘하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의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대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일당백’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필자의 지인 중 한 명은 누구나 인정하는 ‘화장품 **리뷰**’였다. 신상품을 꼭 사용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고, 사용 후에는 본인의 뷰티 블로그를 통해 후기를 남겼다. 블로그가 입소문이 나자 뷰티 업체들은 필자의 지인을 품평회에 초대하고 사용 후기 작성을 부탁하기도 했다. 결국 학부 졸업 후에 국내 유통 대기업에 입사까지 하게 되었다. 덕업 일치를 통해 취업까지 성공하는 사례들은 앞으로 더욱더 많아 질 것이다. **리뷰**들은 사소한 분야일지라도 집요하게 파고 들어 A-Z까지 철저하게 파악한다. 집념은 전문성을 만든다. 무엇인가에 과몰입한 경험은 업무에서도 분명 빛을 발할 수 밖에 없다.